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을 마치며 - 김지연

2023년 6월 25일 출발한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정말 묘하다. 비엔나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부터 기분이 이상했다.

처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의 나는 평화, 통일에 관심이 없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평소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생각해보니 우크라이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는 것 같다.

처음 네덜란드에서의 광장 찬양이 떠오른다. 첫 길거리 찬양이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복직이는 광장에서 다 같은 옷을 입고 기타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조금은 쑥스러워 소극적이게 찬양한 내가 스쳐 지나간다. 네덜란드에서 독일을 거쳐 체코, 폴란드,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에 와서는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었다. 이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에 평화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찬양을 하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저들의 아픔이 나에게도 느껴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 사람들을 위해 손을 뻗어 축복해주고 기도했다. 저 사람들에게 무한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사실 찬양보다 어려웠던 건 서명을 받는 일이었다. 나는 평화드림 5만리에서 기록홍보팀으로 사진을 찍는 역할을 맡았었다. 네덜란드에서까지는 사람들이 서명을 받으려 다닐 때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근데 생각지 못하게 독일에서부터 기록홍보팀도 다같이 서명 활동을 하게 되었다. 처음 서명을 부탁했을 때는 잘 나오지 않는 영어로 우리의 활동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내 성격상 처음보는 사람에게 말 붙이는 것도 어려워 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심지어 열심히 설명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다. 사실 마지막 나라인 오스트리아에서까지도 서명받는 일은 참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 여정을,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평화를 응원해주고 같이 동참하겠다는 것과 나도 이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자신있게 우리의 활동을, 평화를 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여정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도 정이 들어서 헤어지기 아쉽고 속상했다. 사실 내 주변에는 같은 교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교회 사람들과도 교류가 많이 없어 사실상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눌 사람은 부모님 뿐이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앙 이야기를 나눌 또래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다. 특히 룸메이트 언니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언니는 신학을 전공하는 분이었는데 부모님도 목사님이셨다. 언니는 매일 긍정적인 이야기와 칭찬으로 나의 피로를 에너지로 채워주었고, 매일 밤 영어 성경을 읽고 잠이 들었다. 또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학우분들과 약 2주간 함께 지내면서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고, 나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평화드림 5만리 여정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경험한 것은 사랑이다. 여정을 통해 그 나라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평화도 사랑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사랑을 널리 널리 퍼뜨려야 한다. 이번 평화드림 5만리는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여정이었다. 앞으로도 이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과 평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비효과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흐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